

Olá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샬롬!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이 약속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NTATO

TELEFONE:
+55 86 98858-7078

EMAIL:
mkckh@hotmail.com

kakaotalk ID:
강경찬 manuk0522
김민경 calmin0125

TERESINA REPORT

*Beus
o abençoar*

2025 년 한 해를 시작하며, Vale do Gavião 교회는 이사야 41 장
10 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테레지나 지역은 올해도 기후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도시 외곽
지역은 전력 공급이 특히 불안정해, 비나 강풍이 있을 때면 전기가 자주
끊겨 예배와 일상에 영향을 주곤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VALE DO GAVIÃO 소식

성도들은 주일과 수요일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일예배에서는 바울서신 강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큼니다. 이들의 삶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대심방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삶의 여러 형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성도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짐을 나눈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온·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있고,
토요일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지역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발걸음으로,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며 교회가 지역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편지를 통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여러분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 기도가
실제 현장에서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17 주년

2월에 발리 두 가비영 교회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이지만, 이곳에 존재해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감사 예배는 단순한 기념이 아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부르심을 다시 붙드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자매의 회복과 위로의 시간

2주 전,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한 자매가 심한 우울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원 과정에서 자매가 계속해서 “Pastor Manuel”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변 분들이 전해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일 예배를 마친 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자매는 저희를 보자마자 크게 웃으며 안도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자매는 많이 회복되어 이번 주 다시 교회에 나왔고, 따뜻하게 안아주자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삶의 무게와 외로움에 눌렸던 자매가, 주님의 위로로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음악 발표회를 통한 은혜의 나눔

7주간의 연습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 여성도들이 함께한 음악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여성도들은 손이 굳어 피아노 연습이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Deus está aqui”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를 연주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도 기타로 함께 찬양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Deus é tão bom”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Não há ninguém como Jesus”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를 밝고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ADHD를 가진 친구였는데, 부모님은 연습이 어려울까 염려하셨지만 사모와 카렌 선생님의 따뜻한 돌봄 덕분에 잘 집중하며 발표회도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며 음악교실이 계속 이어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발표회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주되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부활절 이후 음악교실을 다시 열 예정이며, 찬양을 통해 더 많은 성도들이



발표회



부활절 찬양준비



교회 주방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청소년 중 한 명은 ADHD 를 가진 청소년으로, 처음엔 많은 긴장을 했지만 음악을 통해 마음을 열었고, 생일 예배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주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며, 이후 예배 반주자로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에게도, 교회 전체에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중창팀의 부활절 찬양 준비

교회 중창팀은 지난 성탄절에도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고, 지금은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의 울림이 전해지고, 모든 삶이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규모 주방 공사

그동안 우리 교회에는 주방이 없어 식사나 간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늘 불편했는데, 기도와 후원해주신 덕분에 2월부터 주방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기와 정전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사와 간식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동네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환경 개선과 태양광 패널 설치 준비

오랜 기다림 끝에 교회 앞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성도들이 좀 더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예배 도중 정전이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가 끊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준비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소식

1. 부모님의 금혼식 감사 예배

지난 3 월,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Piçarra* 교회에서 부모님의 결혼 50 주년(금혼식)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두 분의 신실한 여정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믿음을 지켜온 부부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고, 말씀도 나누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2. 아내의 건강

아내는 허리 디스크로 인한 다리 통증으로 약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 가정의 평안과 부모님의 건강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믿음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체력을 주시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인 어른께서 여전히 희귀혈액암으로 항암 중이 신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교회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예배에 더욱 집중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2. 음악교실, 청소년 찬양 사역, 중창팀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자라가고 공동체가 은혜 안에 하나 되도록
3. 반복되는 정전 문제 속에서도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태양광 패널 설치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4. 부모님의 건강과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도록
5. 허리 디스크로 고통 중인 아내가 주님의 치유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6.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과 믿음으로 세워지고,
양가 부모님의 건강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켜지도록

7.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며,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말씀을 붙들고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2025 년 한 해도 이사야 41 장 10 절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5 년 4 월

강경찬, 김민경, 예준, 예인, 예찬 올림